

김포지역 계란유통시장 재도약 발판마련

이번 김포계란유통센터가 설립되면서 김포 지역 계란유통시장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김포계란유통센터(대표 강병수)는 지난 11일



▲ 김포계란유통센터 강병수 대표

김포 향산리 지역소재 본사에서 김포지역 계란 유통 발전을 외치며 개장식을 가졌다.

이날 개장식에는 강병수 대표, 김선웅 채란분과위원장, 최홍근 한국계란유통협회장, 임재룡 김포축협 이사(전 김포·강화지부장), 이효재 김포강화지부장, 이용현 김포축협 전무, 오경석 안양축협 배합사료공장장 등 업계관계자들이 자리를 빛내주었다.

강병수 대표는 이날 개장식 인사말을 통해 “생산자·조합·유통업체가 모두 함께 선진유통체계 확립과 고품질의 상품성 있는 계란생산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문화와 지역사회 경제



▲ 김포계란유통센터에서 선보인 '영양알'(깔끔한 포장을 이용하여 편리한 운송과 선물용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역동적인 계란유통센터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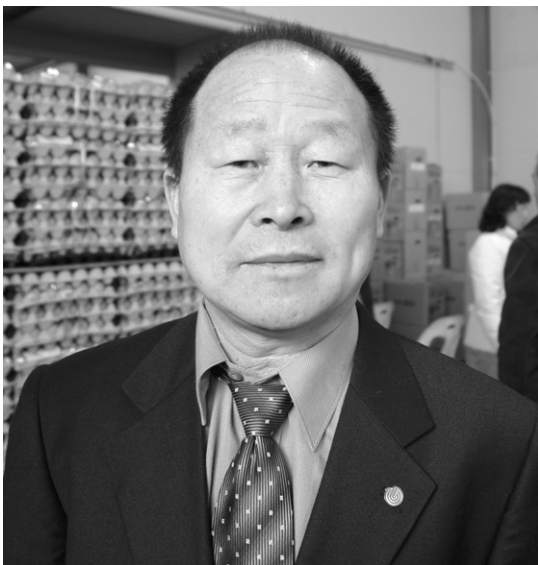
임재룡 김포축협 이사도 인사말을 통해 “준공된 계란유통센터는 점점 침체되어가는 경제 현실속에서 우리 양계인의 부흥과 재도약을 열어가는 희망의 큰 길”이라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최홍근 (사)한국계란유통협회장, 이용현 김포축협 전무, 김응실 김포강화부지부장, 강병수 대표, 이재원 이사, 이효재 김포강화지부장, 김선웅 채란분과위원장, 임재룡 김포축협 이사, 오경석 안양축협 배합사료공장장

김포양계농가 권익보호 향상을 목표로

김포축협과 함께 설립된 이번 김포계란유통센터 설립이 그동안 김포지역 양계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유통문제들을 한결 수월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김포계란유통센터의 탄생을 위해 지대한 역할을 담당해온 임재룡 김포축협 이사(전 김포·강화지부장)

강병수 대표는 산란계 농장과 유통업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타지역보다 발전이 더디던 김포지역 계란유통시장 발전과 양계농가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김포축협과 함께 이번 유통센터 설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포지역 산란계는 100만수 규모로 김포계란유통센터는 현재 30만수 규모를 확보하여 일일 10~15만개의 계란을 유통시킬 계획에 있으며 계란유통물량을 점차 확대시켜 김포축협과 그랜드백화점 등 연계된 지역유통망으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협력농가에 공동사료체제를 구축해 생산자가 안정적으로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차별화된 브랜드전략으로 김포지역 계란유통시장을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취재 | 기영훈 기자)